

석 사 학 위 논 문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전 공

이 영 선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성우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leisure patter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eniors

-Focused on the aged peopl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전 공

이 영 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성우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leisure patter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eniors

-Focused on the aged peopl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이영선

이영선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울 및 경기지역 노인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이 영 선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후의 경제생활, 노인인력활용, 노인부양, 여가활동문제, 의료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사회적 현실에 부응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여가활동의 활성화 및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층에게는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기술과 지식은 적어도 중년기까지 습득되어야만 노년기에 이르러 잘 이용될 수 있기에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사전 여가준비와 여가활동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노인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의 환경과 바쁜 생활 리듬 속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며 소외감과 고독감을 지닌 채 생활한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노년기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노인세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가를 유용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고, 이는 곧 건강한 사회의 재창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는 곧 여가활동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노원구, 중구 등 그 밖의 서울지역,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등 도시지역과 가평군, 연천군 등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만족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여가활동을 제시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위 지역의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368명을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면접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배경변인으로 노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거주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주택소유, 경제생활수준, 월 생활비, 개인용돈, 병원방문횟수 등 10개의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독립변인에는 여가활동으로 ‘사회문화활동유형’, ‘자기개발활동유형’, ‘가족중심활동유형’, ‘고독/무위해소활동유형’, ‘소일활동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활동, 가족중심활동, 여가활동 전체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일활동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중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문화활동, 소일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가족중심활동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노년기가 되면서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역을 서울과 경기의 일부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전국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가욕구와 여가실태에 관하여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비교연구 등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영향변수를 감안하여

좀 더 폭 넓은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노인, 여가활동, 여가욕구, 생활만족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노인 여가활동 선행연구	7
1. 여가의 개념	7
2. 여가활동의 특성 및 유형	8
3. 노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제 2 절 노인 생활만족도 선행연구	17
1. 노인 생활만족도의 개념	17
2.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	19
3.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제 3 절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24
제 3 장 조사설계	26
제 1 절 연구모형	26
1. 분석틀	26
2. 연구가설	26
제 2 절 조사설계	27
1. 조사대상	27
2. 조사방법	28
3. 설문지구성	28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29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	30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실태 분석	33
제 3 절	사회문화적 변인 분석	35
1.	여가활동	35
2.	생활만족도	48
제 4 절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분석	50

제 5 장 요약 및 결론52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2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55

【참고문헌】	59
---------------------	----

【부 록】	64
--------------------	----

설문지	64
------------------	----

ABSTRACT	71
-----------------------	----

【 표 목 차 】

[표 1-1]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2
[표 2-1] 성별 주요 여가활동시간 현황	12
[표 4-1] 신뢰도 검증	29
[표 4-2]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1	31
[표 4-3]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2	32
[표 4-4] 여가활동 참여실태에 대한 분석	34
[표 4-5] 거주지역별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	37
[표 4-6] 거주지역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38
[표 4-7] 성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39
[표 4-8] 연령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40
[표 4-9] 결혼상태별(배우자유무)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	41
[표 4-10] 교육수준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42
[표 4-11] 주택소유형태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	43
[표 4-12] 경제생활수준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	44
[표 4-13] 월 생활비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45
[표 4-14] 개인용돈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46
[표 4-15] 병원방문횟수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	47
[표 4-16] 노인의 사회문화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49
[표 4-17]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분석	50
[표 4-18]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51

【 그림 목 차 】

<그림 1-1>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1
<그림 1-2> 기대여명(65세 이상, 2009)	2
<그림 3-1> 분석틀	26
<그림 4-1>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1



제 1 장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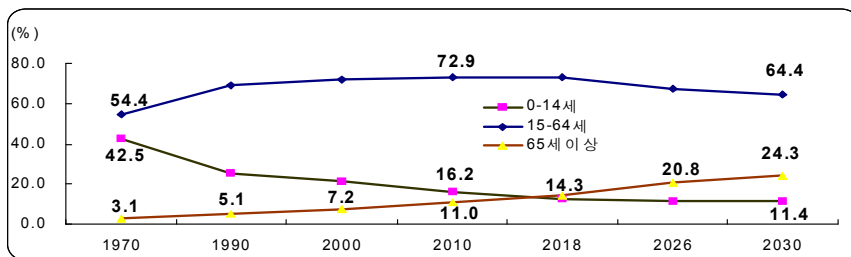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들면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간의 수명을 혁신적으로 연장시켰으며,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 고령화 문제가 교육, 생산, 경제, 복지, 문화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들 보다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란 한 국가의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의 고령화 사회 분류를 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이상-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정의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난 2000년에 전체인구 중 7.2%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그림1-1>과 같이 2026년에는 65세이상 비율이 20%이상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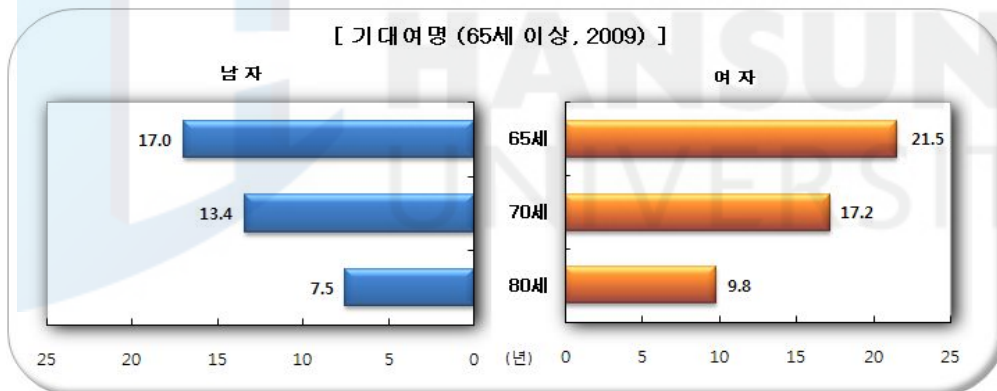
[표 1-1]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단위 : %)

	1970	1990	2000	2010	2018	2026	20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42.5	25.6	21.1	16.2	12.7	11.7	11.4
15~64세	54.4	69.3	71.7	72.9	72.9	67.5	64.4
65세 이상	3.1	5.1	7.2	11.0	14.3	20.8	24.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의 비중은 17.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9년 현재 65세 남자는 앞으로 17.0년, 여자는 21.5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2> 기대여명(65세 이상, 2009)



자료: 통계청, 「생명표」, 2009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는 39.0%이며,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61.0%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38.3%는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37.8%는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 18.4%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였다(통계청, 2011).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낮은 노후준비율은 노후의 경제생활, 노인인력활용, 노인부양, 여가활용문제, 의료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출가로 인한 빈둥지(empty nest) 증상, 퇴직, 배우자 및 주변인들과의 사별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역할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노인들은 무력감, 고독감, 소외감 등이 증대되어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결국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나향진, 2001: 1).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급격한 수입감소에 따른 빈곤문제,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 역할상실에 따른 무위문제, 사회·심리적 갈등에 따른 소외문제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무위는 사회에서의 은퇴로부터 시작된다. 은퇴 후 노년기가 평균수명 연장으로 점점 길어지는데 이 시기를 ‘무위기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가기간으로 볼 것인가’는 인생행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노년기를 무위로 사는 노인은 인생이 무료하고 지루하며 고립되고 우울한 생활로 허비할 수 있고, 노년기를 새롭게 자아를 재편성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아 살아간다면 창조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60~70년대 경제성장 기조를 거치면서 사회분위기 속에서 일과 삶을 동일시하여 즐기고 음미하는 ‘삶’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즉, 그들은 일생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여가의 가치를 훨씬 능가한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여가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술(leisure competency) 또한 지니고 있지 못 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현재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노동 및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며 ‘역할 없는 역할’속에서 원치 않는 여가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여가생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여가활동은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기회의 제공,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유용감과 자기 가치성의 확신,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재미있고 즐거운 삶의 영위 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향진, 2002: 2 재인용).

노인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의 환경과 바쁜 생활 리듬 속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며 소외감과 고독감을 지닌 채 생활한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심신의 피로를 풀고 정서를 순화시킴으로써 노년기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즉, 노인세대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가를 유용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가치가 향상될 것이고, 이는 곧 건강한 사회의 재창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문제는 곧 여가활동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박종천, 2010: 3).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인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가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려는 노력들로 노화의 개념에 대한 노인 당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예전보다 늘어난 노년의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성공적인 노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과 이를 평가,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삶의 현실과 성공적인 노화로 가기위해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어떤 수단을 이용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피상적으로 그치고 있다(김미혜·신경림, 2005: 95-116).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적 문제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맞추어 노인복지정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고독감, 심리적인 만족감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가활동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찾아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부응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노인여가활동의 활성화 및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은 층에게는 이러한 여가활동에 대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위한 적정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 여가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요인들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하고, 이것이 노인의 여가 생활만족도에 실제 어느 정도로 영향관계를 가지는가를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여가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만족스러운 여가생활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대상 모집단을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으로 하였다.

노인의 정의는 대개 연령을 기준으로 내리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행 기초노령연금법¹⁾에 65세 이상의 노인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1)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 지급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2007.4.25 제정).

그 이유는 첫째 노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발달심리학에서는 헐록(Hurlock)의 이론을 바탕으로 60세 이상을 노년기로 보고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60세를 회갑으로 규정하여 노화기에 들어서는 시점으로 인식하여 왔고, 셋째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한 연령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으며, 넷째 사회적으로 55세부터 60세에 퇴직하게 되고, 다섯째 공무원 등의 퇴직 연령이 거의 60세를 전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섯째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생활실태조사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곱째 국민연금법²⁾에서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화 정도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개인차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기능과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시기에 달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은퇴한 60세 이상의 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대상을 368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배경변수, 연구대상, 측정도구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여가활동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기타 지역 여가활동 참여 노인들의 문화적, 지역적, 경제적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통제된 독립변인 이외의 통제되지 않은 외생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노인 여가활동 및 노인 생활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등으로 구성하였고, 제3장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분석틀을 설계하고, 연구가설 설정, 조사설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4장은 설문분석에 대한 분석결과 및

2)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①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2007. 7. 23 개정).

해석을 근거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실태 분석, 사회문화적 변인 분석, 노인의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제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 여가활동 선행연구

1. 여가의 개념

여가(餘暇)란 ‘남을 여(餘)’와 ‘거를 가(暇)’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틈’이나 ‘겨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남는 시간’ 또는 ‘일과 일 사이의 한가로운 시간’을 뜻한다(전숙자, 2009: 20).

여가를 뜻하는 영어 Leisure의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인 Leisure의 뜻인 ‘자유롭게 되다(To Be Free)’에서 비롯된 ‘자유시간(Free Time)’과 그리스어로 Scolē 또는 Skolē의 뜻인 ‘정지, 평화 및 평온’과 ‘자기개발(Self-development)’과 같은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 학자(Scolē)나 학교(School)와 같은 교육적인 의미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여가는 노동의 반대개념이고, 강제성 및 의무성이 희박한 선택행위이며,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 휴식 및 즐거움 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시간 집약적이며, 소득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 한가한 상태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혹은 임의적인 가용시간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시간적 개념으로 이 시간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여가활동이라 부른다(고정자, 2001: 248-249).

여가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 개인이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가에는 기쁨과 즐거움

을 얻기 위하여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신과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 즉, 여가에는 개인의 성장·개발·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 태도, 활동 등이 포함되게 된다. 때문에 여가는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제반 환경을 조절하여 어떠한 활동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인간의 성장단계에 맞는 미래의 자아개발 및 성장을 위한 노력,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 주요한 삶의 영역 외에 추가적 경험을 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하동현·황성혜, 2005).

2. 여가활동의 특성 및 유형

노년기를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난 시기로 본다면 노인의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은 여가활동인 것이다. 노년기는 여가의 시기로서 극단적으로는 노인의 하루 24시간 전부가 여가시간일 수 있다. 그러므로 풍부하게 주어지고 있는 자유 시간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는 노인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전례 없이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노년기도 연장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여가의 과제는 많은 노인들에게 고민거리로 되고 있다. 따라서 여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된다(최성재·장인협, 2006).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와 함께 노인인구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과 관련된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은 가치관의 변화, 가정에서의 역할상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향상 등으로 인하여 여가에 대한 욕구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임춘식 외, 2007).

일반적으로 노년기 여가활동은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 기회의 제공, 삶에 대한 사기 및 만족감의 증진,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유용감과 자기가치성의 확신,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재미있고 즐거운 삶의 영위 등을 도모할 수 있다(한국

노년학회편, 2002).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인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개인적으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상실에서 오는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심신의 피로와 정서의 순화로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공식적인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난 노인이 사회참여의 기회로 활용하여 자아존중감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다(임춘식 외, 2007).

노년기 여가활동을 얼마나 보람 있고 유용하게 보내느냐는 노후의 고독감,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 보장은 소득 보장, 의료 보장 등과 같이 노인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한국노년학회편, 2002).

이상과 같이 노인생활에서 여가의 개념은 일반인들의 여가와 다르다. 즉, 일반인의 경우는 노동과 결부시켜 재생산의 수단이나 심신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활력 있는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노인의 경우는 여가가 삶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은 취미나 오락, 놀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나 교육, 문화적 활동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이로써 노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적극적이고도 올바른 여가선용으로 은퇴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한 여가는 비능률적인 일로 단지 소일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노년기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김동진, 2007).

김성순(1990)은 노인여가활동의 유형을 노인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합하여 한거형, 자기완성형, 근로형, 사교오락형, 사회참여형, 폐쇄형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한거형은 비교적 여유 있는 경제력과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그림, 음악 등의 여가활동을 즐기며 심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둘째, 자기완성형은 은퇴 전에 하지 못했던, 또는 평소 하고 싶었던 활

동을 여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주로 각종 교양강좌의 수강, 토론회 참여 등으로 인격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유형이다.

셋째, 근로형은 대부분의 농촌노인들이 해당되며 가정내 소일, 시간제일을 통하여 소액의 경제적인 이득과 여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형이다.

넷째, 사교오락형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추구하는 여가활동으로 골프와 같은 스포츠, 낚시 또는 여행과 같은 취미활동을 통하여 사교 또는 오락을 즐기는 유형이다.

다섯째, 사회참여형은 각종 사회 및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아를 개발하는 유형이다.

여섯째, 폐쇄형은 건강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 내에서 머물며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형으로 하루 종일 소일로 여가활동을 대치한다.

김성순의 분류를 분석하면 노인여가활동을 적극적인 활동과 소극적인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안미영(2005)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사회문화활동유형, 자기개발활동유형, 가족중심활동유형, 고독/무위해소활동유형, 소일활동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사회문화활동유형은 주로 가정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노인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기, 각종 사회봉사 활동하기,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기타 모임 참여하기, 영화, 연극관람, 미술전시회 구경하기, 운동(탁구,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댄스, 체조 등)하기 등이며, 자기개발활동유형은 서예 및 사군자, 그림 그리기, 묵화, 만들기, 독서하기, 신문이나 잡지보기, 가정식물재배, 정원 돌보기(난, 분재, 화초, 붕어 기르기), 컴퓨터 인터넷 사용하기 등 이고, 가족중심활동유형은 가족과의 대화, 자녀 집 방문(손자녀와 놀아주기), 가족 동반 외식이나 외출하기 등이다. 그리고 고독/무위해소활동유형은 각종 종교활동 참여하기, 노인학교나 경로당 또는 공원 혹은 다방 등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기, TV시청, 라디오 청취하기 등이며, 소일활동유형은 화투, 장기, 바둑 두기, 낮잠,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일 없이 시간 보내기 등이다.

김동진(2007)의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적합한 여가활동은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활동 및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스포츠 활동은 대근군(근육의 일종)을 사용하면서 근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섬세한 기술과 시합의 조합, 전술 등으로 두뇌를 사용하는 스포츠가 적합하며, 신체기능의 노화예방을 위해서는 다리와 허리를 사용하면서 손가락이나 손으로 미세한 조작과 전술을 구사하고, 동료의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효과적이며, 여기에는 게이트볼, 골프, 댄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배드민턴, 당구, 탁구, 조깅 등이 있다. 취미 및 교양활동에는 등산, 낚시, 바둑, 켈트, 다도, 서예 등을 들 수 있으며, 오락활동으로는 음악 및 노래교실, 인터넷과 게임, TV시청, 영화관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는 노인들 자신이 봉사활동의 수혜자에서 이제는 봉사활동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타인에게 봉사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은 축적된 인생경험을 살리고 사회적 위치도 재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창조적으로 성취하는 삶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탁기주(2010)는 여가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건강관리활동에는 정신건강은 물론 육체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국선도, 요가, 에어로빅, 건강체조, 스포츠댄스, 헬스, 골프, 탁구, 당구, 온천,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으로 구성하였고, 교양·학습활동에는 영어·일본어·중국어·한글학습 등 어학, 사물놀이, 컴퓨터 및 인터넷 정보활용, 법률, 재산관리 등으로, 취미·오락활동에는 TV 및 라디오 청취, 친구와의 대화, 친목회, 여행, 바둑, 화투, 악기연주, 사진찍기, 동·식물원 관람, 뮤지컬·연극·영화보기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에는 말벗·도시락배달, 교통정리, 숲·고궁해설가, 전통문화 지도 등으로, 사회·종교활동에는 예배·미사·법회, 정치적 각종 정당활동 등으로, 가사·가족활동에는 집안정리정돈, 정원손질, 가족동반외식, 손자녀 돌보기, 시장구경 등이다.

통계청의 2011 고령자 통계 중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보면 한국의 고령자는 읽기(10분)보다는 스포츠 및 집박레저(47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고령자들은 읽기(1시간 내외)에 상

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령자는 하루에 평균 6시간 46분을 교제 및 여가에 할애하여, 미국(8시간 19분), 영국(8시간 47분), 네덜란드(7시간 17분)보다 적은 수준이며, 한국의 고령자는 전체 여가시간(6시간 46분) 중 주로 TV보기(3시간 27분), 교제활동(57분), 스포츠 및 집밖레저(47분), 종교활동(22분), 신문·잡지·책 읽기(10분)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TV보기는 국가별로 평균 3시간내외로 고령자의 주된 여가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종교활동은 한국이 22분으로 가장 높았다.

신문·잡지·책 읽기와 스포츠 및 집밖레저 시간은 한국, 스페인이 각각 10~20분, 1시간 내외인데 비하여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각각 1시간과 20분 내외를 사용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종교활동과 교제활동(네덜란드 제외), 남성은 TV보기, 스포츠 및 집밖레저 활동(미국제외)을 많이 했다(통계청, 2011).

[표 2-1] 성별 주요 여가활동시간 현황

(단위: 시간, 분)

주요 여가활동	한국(2009)			미국(2005)			영국(2005)			네덜란드(2005)			스페인(200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교제 및 여가	6:46	7:24	6:20	8:19	9:02	7:48	8:47	9:02	8:36	7:17	7:37	6:58	7:06	8:25	6:05
종교활동	0:22	0:12	0:30	0:11	0:09	0:13	0:06	0:04	0:06	0:10	0:11	0:09	0:08	0:05	0:10
읽기(신문,잡지,책)	0:10	0:20	0:04	1:03	1:00	1:05	1:01	0:59	1:02	1:06	1:06	1:07	0:20	0:29	0:13
TV보기	3:27	3:46	3:14	3:46	4:14	3:25	3:54	4:10	3:41	2:23	2:38	2:08	2:54	3:08	2:43
교제활동	0:57	0:50	1:01	0:52	0:47	0:56	1:13	1:01	1:23	1:12	1:04	1:19	0:17	0:15	0:20
스포츠 및 집밖레저	0:47	1:07	0:33	0:24	0:18	0:25	0:20	0:28	0:13	0:27	0:35	0:20	1:14	1:41	0:53
기타	1:03	1:09	0:58	2:03	2:34	1:44	2:13	2:20	2:11	1:59	2:03	1:55	2:13	2:47	1:46

자료: 2009년 한국생활시간조사, MTUS(Multinational Time Use Study, <http://www.timeuse.org/mtus>)

3. 노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여가활동은 사회, 경제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동의 주체자로서 각 개인이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노인의 여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별

성별은 전통적으로 여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남녀가 하는 일의 형태가 다르므로 자유 시간의 할당도 달라져 여가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성 노인들은 친구와의 모임이나 운동, 등산, 낚시, 바둑, 장기, 화투 등 가정 밖에서의 여가활동이 많은 편인데, 여성 노인의 경우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며, 종교 활동을 통한 정적인 활동이 많고, 운동이나 관광 등 능동적인 취미 활동은 비교적 저조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여가시간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가족 중심적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박종천, 2010: 34).

그러나 향후 여권 신장에 의한 남녀평등이 진행됨에 따라 성별에 의한 여가활동은 변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연령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 참여율이 감소하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하였다(이가옥 외, 1994: 28).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산책이나 가정에서의 식물 재배하기 등의 소일거리로 여가를 보내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건강이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여가생활 역시 활동력이 감소되어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이 증가된다. 가정 밖에서 하는 활동 보다는 가정 안에서 하는 활동을 보다 선호하게 된다(김태현, 1996: 118).

위의 선행연구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시간은 많아지지만 여가 활동의 범위가 좁아지고, 움직이는 활동적인 여가보다는 앉아서 하는 여가 활동이 증가하며, 가정 내적인 여가활동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3) 건강

노인들이 여가생활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봉사 활동하고자 하여도 건강문제가 발생한다면 삶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건강유지에 대한 고령자의 관심은 노후의 여가 생활욕구 중에서도 비중이 크다. 노인들은 신체적 노쇠 현상으로 활동 능력이 떨어지므로 좋은 건강 상태와 기동력은 노인들에게 여가활동 폭을 넓게 해주고 참여 빈도 또한 높게 유지시켜 준다. 건강한 노인 일수록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여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노인들의 80% 이상이 적어도 하나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건강으로 인한 활동상의 지장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홍수, 1999: 16).

4)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개인의 여가에 대한 욕구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여가활동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노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규칙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참여를 예측해 주는 유용한 변수로서 인식되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높은 교육 수준은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화의 기회를 높게 함으로써 여가활동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할 가능성을 높인다(박종천, 2010: 35).

5) 배우자 유무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자녀의 출가 후에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사별이나 이혼 등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부부 단독세대에서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면 가사 내용이 크게 변화하게 되고, 부부생활 자체도 해체되어 많은 여가 시간이 생기게 되므로 여가활동 양상이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배우자 상실은 심리적 외로움 및 역할 상실감을 갖게 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모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는 여가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종천, 2010: 34-35).

6) 동거가족형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동거가족형태가 많이 변화되었지만 아직도 노인들의 대부분이 노후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부부들이 손자녀를 돌보거나 집보기, 가사노동 등을 하며 여가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 동거가족형태는 노인의 여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거가족형태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7) 용돈

은퇴로 인해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노인의 경우 용돈은 가계의 총수입 및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여가활동 참여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김선희, 2006: 16).

장인협·최성재(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35%로 나타났다.

8) 종교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종교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신에

대한 믿음도 더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 감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커진다는 견해들이 많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종교단체, 노인정, 노인학교, 취미단체, 운동단체, 정치단체, 지역모임, 봉사단체 등의 단체 활동 참여빈도 및 시간을 조사했는데, 7개 단체 활동 중 종교 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66.6%가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병숙, 1995: 188).

노인에 있어 종교는 종교 활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사후에 대한 정신적 편안함을 제공해주며, 많은 동료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종교를 갖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는 노인보다 여가활동 참여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종교의 유무는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주택소유형태

재정 능력이 큰 노인들은 스스로 소유한 주택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며 노인 부부만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경제 상태가 열악한 노인은 전·월세 상태에서 자녀 및 손 자녀와 더불어 대가족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이인수, 1999: 103).

그로인해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뿐만 아니라 유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은퇴로 인해 수입이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가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여가활동 참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 직업 유무

퇴직은 사회적으로 노령기의 시작을 의미하며 의무적인 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여가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Wilensky와 Parker, Kelly는 직업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력, 학력과 상호관련 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며, 또한 개인의 자유시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이영기, 1992: 16).

직업 유무는 개인의 자유시간을 결정하고 여가활동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여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11) 생활수준 및 가계총수입

경제적 사정은 노년기의 여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소득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변수이며 개인의 여가활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했는데, 이는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교통비, 참가비, 용돈 등 다양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사정이 좋은 노인들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경제적 생활수준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노인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노인 생활만족도 선행연구

1. 노인 생활만족도의 개념

노인이 갖는 생활 만족은 건강, 참여, 그리고 안전(security)을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노인들의 자립적인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기찬 노후(active aging) 즉,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높은 생활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며, 노인의 생활만족도 수준을 평가했을 때 한 개인이 자신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이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 그 노인은 자아통합단계에 도달했으며 성공적인 노화를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생활만족도는 노인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노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임춘식 외, 2007).

생활만족도는 1961년 뉴카르텐(Neugarten, et. al: 1961)과 그의 동료들이 활동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사용하면서부터 사회복지학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들은 LSI(Life Satisfaction Index)라는 생활에 대한 만족척도를 처음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란 매일의 삶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여기며, 자신의 삶을 받아드리고, 자신의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감과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후,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내려져왔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권중돈·조주연, 2000). 그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노년학에서 노년기에의 적응, 성공적인 노화, 그리고 정신건강의 지표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조용하, 2004: 12).

생활만족도에 대한 국내연구에서는 이효재(1979)가 처음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생활만족도를 일상적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영상을 갖고 낙관적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았다(최성재, 1986).

홍순혜(1984)는 노인의 생활만족이란 ‘노인이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 자신이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갖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만족감’이라고 하였고, 최성재(1986)는 생활만족도를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수연(1987)은 ‘생을 통하여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실질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과의 합일 정도로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인 개념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오현숙(2003)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한 개인의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해가며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성공적인 노

화의 개념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임창희(2005)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의 긍정적인 목적이자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이며, 이를 성취하였을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노화란 노년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일생동안 장기간에 걸친 가치관과 자아개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한 개인의 복잡한 실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여러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공통적 의견은 생활만족도는 노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써 생활만족도가 높아야 노인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노인의 생활만족도란 노인 자신의 생애를 얼마나 의미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노화과정을 겪어가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하며 적응하는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한 개인이 노화하여 간다는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는 개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되며, 노화에 따른 특별히 구분되어진 모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가치관, 자아개념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원주, 2011: 33).

2. 노인의 생활만족도 관련 이론

1) 은퇴이론(Disengagement Theory)

Cumming & Henry는 노인은 젊은이에 비하여 건강이 약화되고 노령화됨으로써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이탈 또는 분리되는 상호적 은퇴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은퇴이론은 노인의 생활적응을 나타내는 생활만족도를 노인의 역할 및 활동과의 관계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노년기는 중년기의 연장이 아니

라 사회적 역할 및 인간관계로부터 은퇴하거나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노인은 젊은 사람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며 사회공헌에서도 미약하고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맡기기보다 휴식과 자유로움을 주고 사회활동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탁기주, 2010: 16).

정광섭(2001)은 사람은 누구나 활동할 능력이 있을 때 능력껏 활동을 계속하다가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하여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될 때 가정과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서서히 손을 떼게 되며 이러한 정상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적 유리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2)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교환이론은 Homans가 제시한 것으로서 인간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보상과 댓가의 교환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행동 혹은 인간관계를 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관계 혹은 사회적 행동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적인 활동으로서 사람들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이익 혹은 보상이 교환되어져야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권력을 갖기 위하여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는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교환자원의 부족 및 고갈, 가치의 저하 등은 노인들의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의존성을 증가시키며 권력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이 갖고 있던 경험에 근거한 기술 및 기능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환자원이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어 왔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산업화, 기계화에 따라 새로운 지식이 요구됨으로써 전통사회와 달리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교환할 가치가 있는 교환자원이 새로이 교육받은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의 노인은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불리

하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하락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인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또는 순응해야 하는 부수적 필요성만 생기게 되고 노인의 교환자원의 상실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교환이론에서의 공통적인 기본개념은 보상, 대가, 교환자원 등이다. 즉 보상은 개인에게 주는 만족감, 기쁨 등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개념을 말하며, 대가는 특정 상황을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시간, 노력, 돈, 지위관계 등을 의미한다. 교환이론은 자원의 양에 따라 행동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노인이 자원을 얼마나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는냐에 따라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탁기주, 2010: 17-18).

3)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사회구조 내에서의 노인의 지위와 이에 관련된 역할과 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들은 노인의 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정립시켰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론이 활동이론이다. 활동이론에서는 활동과 생활만족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며, 역할 상실이 클수록 생활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최인근, 2007: 46).

Diener(1984)는 생활만족이나 행복은 인간 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행복은 수행이 잘 된 바람직한 활동에서 생겨난다는 주장으로 개인이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한다면 행복은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로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활동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고 행복은 이러한 능력이 훌륭하게 수행될 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의 활동의 개념은 사회활동, 취미, 운동 등 보다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활동(activity)의 의미는 일상적이고 신체적·개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넘어서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행동(action)을 말한다.

앞에서 논의한 활동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행복과 생활만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상호작용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행복과 생활만족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활동이론은 노년층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공헌을 하였고 활동과 생활만족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

노년기의 경우는 노년기 이전과 같이 사회생활에 참가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활동이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론으로, 이러한 활동은 생활만족, 행복증진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척도와도 연결되어 있다(탁기주, 2010: 15-16).

그러나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노인은 자발적으로 완전하게 사회적 관계를 끊을 때까지 적절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생활의 질,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사회제도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고립, 무력감 등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잔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인의 활동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요구된다.

3.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 가치, 태도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사회구조라는 거시적 차원에 이르는 여러 형태의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오현숙, 2003: 16).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시대적, 사회적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 가치관, 사회구조 및 환경 등이 바뀌면서 개인적 요인 및 가족관계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적관계, 사회활동 및 주변 생활환경 요인으로까지 변화되고 있다(장명숙, 2011: 3).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국내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우복(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교육 참여, 건강상태, 사회단체 참여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보고하였다.

김수옥·박영주(2000)의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직업, 가족형태, 교육정도, 종교가 삶의 질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직업이 없는 것 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홀로 사는 것 보다는 동거인이 있는 노인이, 종교를 가진 노인의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중돈(2004)은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의 유무, 건강상태, 종교, 사회활동 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송은(2006)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가족환경, 심리적 건강, 경제상태, 여가생활, 사회활동 등이라 했으며, 특히 여가생활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미라(2007)는 한글교실, 취미활동, 직업교육 등 사회교육 참여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하였고, 김금숙(2007)은 사회활동 요인 중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가장 큰 변수는 친구만남 등 여가시간의 시간활용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재영(2007)은 여성노인의 경제적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에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생활만족도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노인은 경제적 활동이 생활만족도 수준을 좌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전체 노인에게 빈곤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학력수준, 연령, 고용상태, 결혼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저소득 여성노인들은 일반 여성노인들에 비하여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영(2007)은 여성노인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연령은 60대, 70대, 80대 순으로 젊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이 사회 심리적 적응도나 행복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저소득 여성노인에게서의 연관성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이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노인자신이 과거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만족감의 정도이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활만족도는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노인들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가족관계로 시작되는 관계문제, 둘째는 건강의 문제, 셋째는 경제적인 문제, 넷째는 여가활동 등 사회적 참여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홍상욱, 2011: 2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어느 시기 등을 막론하고 확실적인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간적인 변화나 가치관의 변화 또는 지역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 3 절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노인에게 있어서 여가의 의미는 젊은이들의 여가와 다른 생활의 대부분이 여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의 여가활동은 그들의 생활만족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므로 여가는 단순히 시간보내기가 아니라 최후의 날까지 자신을 발전시키고 개화시키는 기회이며, 노인들이 사회를 위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노후생활의 질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모창배(1993)의 연구에서는 20세에서 70세까지의 대상을 연구한 결과 여

가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측정결과 참여형 여가와 휴양형 여가는 여가소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양형 여가가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반면 교양, 감상형 여가는 여가소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생활만족도는 감소하였고, 진봉국(1993)은 조사대상을 30세 이하, 31세에서 40세, 51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에 있어서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소득에 의해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행락 및 관광활동이 생활만족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수민(2003)은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노년의 의미 있는 활동과 흥미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노인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하였고, 이선미(1991)는 51대의 중년 남자와 60대의 노인 남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과 인생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중·노년기 여가활동 참여와 인생만족도는 상관관계에 있어서 참여를 많이 할수록 인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생활정도, 수입 유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생만족도는 여가활동, 건강상태, 은퇴유무, 생활만족도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이재근 외, 2006: 243-272).

문희영(2000)은 여가활동 유형 중 자녀 집 방문, 가족동반 외식, 외출하기, 가족과의 대화 등 가족중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활동, 자기개발활동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영애(2004)는 취미활동, 건강활동, 종교활동, 학습활동, 관람 및 감상활동, 봉사활동 순으로, 서민호(2008)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취미활동, 종교활동, 교양학습활동, 건강관리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탁기주(2010)는 참여유형별 생활만족도 비교에서 생활만족도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건강관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노인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를 볼 때 노인의 여가생활참여가 여가생활만족도에 유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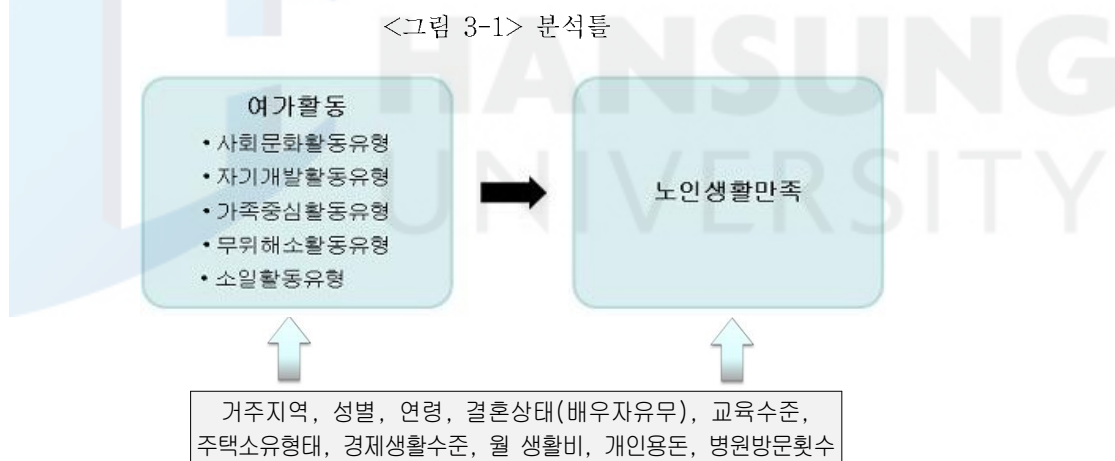
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노인생활만족
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조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1. 분석틀

본 연구는 여가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고, 이와 함께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하여 여가활동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2. 연구가설

위 <그림 3-1>의 분석틀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문화적변수가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문화적변수가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여가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 사회문화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자기개발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가족중심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4. 고독/무위해소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5. 소일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이라는 단일한 집단이 아닌 거주지역,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서로 다른 상황 하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수준은 서로 다를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은 다양한 욕구와 선호도를 보여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노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여가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조사설계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여가활동에 따른 노인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우리나라 부(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경기도와 접해있는 대단위 주거지역인 노원구와 도심지 주변의 주거지인 중구 등 서울 기타지역,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북부의 의정부시와 고양시, 경기남부의 평택시 등 도시지역과 경기도의 대표적 군(郡)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 소재한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10개 노인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의 강남과 그 밖의 서울지역, 경기도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여가활동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인식되고, 노인복지관 이용 가능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기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에서 발행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및 통계자료, 정부간행물,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정부정책자료, 각종 유관기관과 연구기관의 홈페이지, 각종신문 등 문헌을 기초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조사연구로는 설문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응답을 받는 면접조사방법을 실시하였고, 조사원은 사회복지사 및 보조원, 기관의 실무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실시되었고, 본 연구를 위해 미리 설계한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32부를 제외한 36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설문지구성

본 조사의 설문지는 여가활동의 참여실태로 여가활동의 동기, 여가활동 유형, 여가만족정도,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좋은 점 등 6문항을 구성하였고, 이중 여가활동유형은 안미영(2005)이 연구했던 사회문화활동유형, 자기개발활동유형, 가족중심활동유형, 고독/무위해소활동유형, 소일활동유형을 참고하였다.

노인 생활만족도는 한국노년학포럼(2010)의 노년학 척도집에 수록된 사항을 인용하여 노인의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과

거차원의 문항 6개(긍정 및 부정문항 각각 3문항), 현재차원의 문항 8개(긍정 및 부정문항 각각 8문항), 미래차원의 문항 6개(부정 및 긍정문항 각각 3문항) 이상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한국노년학포럼, 2010).

그리고 일반적 특성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배우자유무), 교육 수준, 동거여부, 종교, 주택소유형태, 주거지역, 경제적 생활수준, 생활비 부담, 생활비 마련, 월 생활비, 개인용돈, 직업, 건강상태, 병원방문횟수 등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및 해석

본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실증분석에 대한 자료 분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이용되는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Ver. 16.0 for Windows)을 활용하여 통계적 자료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수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여가활동의 참여유형과 생활만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가활동참여유형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가활동 참여정도는 0.8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도 0.647-0.701로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에서도 0.855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1] 신뢰도 검증

구 분		신뢰도값	
여가활동	사회문화활동	.701	.825
	자기개발활동	.693	
	가족중심활동	.647	
	고독/무위해소활동	.650	
	소일활동	.668	
생활만족도		.855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응답 비율을 보면 거주지역에서는 경기도 도시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기타지역, 경기도 농촌, 서울 강남 3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73.1%로 남자 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71-75세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66-70세, 76-80세, 81세 이상, 60-65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배우자유무)에서는 기혼이 45.7%로 가장 많았고, 사별, 이혼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 고졸, 무학, 대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에서는 배우자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기혼자녀, 미혼자녀, 기타, 미혼+기혼자녀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38.6%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무교, 천주교,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에서는 자가 62.8%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무상임대, 월세, 전월세,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는 아파트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빌라연립,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생활수준에서는 보통이 65.8%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편, 높은 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담여부에서는 부담이 60.6%로 비부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비 마련방법에서는 연금이 40.4%로 가장 많았고, 직접, 저축한 돈, 기존재산, 퇴직금/자녀의존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생활비에서는 50만원 이하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50-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용돈에서는 10만원 이하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 20-30만원, 3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없음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농축수산업, 자영업,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나쁜편, 매우 나쁜편, 매우 건강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방문횟수에서는 한달 1-2번이 50.8%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2-3번, 1주일 1-2번, 1년 1-2번, 전혀 안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1

구 분		빈도	퍼센트
거주지역	경기도 도시	112	30.4
	경기도 농촌	82	22.3
	서울 강남 3구	72	19.6
	서울 기타지역	102	27.7
성별	남	99	26.9
	여	269	73.1
연령	60-65세	47	12.8
	66-70세	83	22.6
	71-75세	93	25.3
	76-80세	78	21.2
	81세 이상	67	18.2
결혼상태 (배우자유무)	기혼	168	45.7
	사별	162	44.0
	이혼	38	10.3
교육수준	무학	57	15.5
	초졸	84	22.8
	중졸	95	25.8
	고졸	81	22.0
	대졸 이상	51	13.9
동거인	혼자	110	29.9
	배우자	159	43.2
	미혼자녀	34	9.2
	기혼자녀	51	13.9
	미혼+기혼자녀	5	1.4
	기타	9	2.4
종교	기독교	142	38.6
	불교	82	22.3
	천주교	57	15.5
	무교	76	20.7
	기타	11	3.0
주택소유형태	자가	231	62.8
	전세	44	12.0
	전월세	13	3.5
	월세	30	8.2
	무상임대	42	11.4
	기타	8	2.2
주거형태	아파트	216	58.7
	단독주택	97	26.4
	빌라연립	45	12.2
	기타	10	2.7

[표 4-3] 조사대상자의 사회문화적 특성2

구 분		빈도	퍼센트
경제생활수준	높은 편	47	12.8
	보통	242	65.8
	낮은 편	79	21.5
생활비 부담여부	부담	223	60.6
	비부담	145	39.4
생활비 마련방법	직접	42	18.8
	퇴직금	12	5.4
	저축한 돈	35	15.7
	기존재산	32	14.3
	연금	90	40.4
	자녀의존	12	5.4
월 생활비	50만원 이하	115	31.3
	50-100만원	112	30.4
	100-200만원	91	24.7
	200-300만원	35	9.5
	300만원 이상	15	4.1
개인용돈	10만원 이하	90	24.5
	10-20만원	87	23.6
	20-30만원	81	22.0
	30-50만원	63	17.1
	50-100만원	34	9.2
	100만원 이상	13	3.5
직업	자영업	19	5.2
	사무직	13	3.5
	일용직	36	9.8
	농축수산업	20	5.4
	없음	280	76.1
건강상태	매우 건강	19	5.2
	건강	98	26.6
	보통	150	40.8
	나쁜 편	69	18.8
	매우 나쁜편	32	8.7
병원방문횟수	1주일 1-2번	58	15.8
	한달 1-2번	187	50.8
	6개월 2-3번	78	21.2
	1년 1-2번	34	9.2
	전혀 안감	11	3.0
합계		368	100.0

제 2 절 조사대상자의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실태 분석

여가활동유형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가활동 동기에서는 건강유지/증진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 사교, 자기만족, 스트레스 해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에서는 자기개발활동이 29.3%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문화활동, 소일활동, 가족중심활동, 고독/무위해소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만족/그저 그렇다,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에서는 비용 많이 듦과 몸 불편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불편, 장소/시설 부족, 정보/지식 불충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못한 이유에서는 건강문제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문제, 시간문제, 교통불편, 정보부족, 기타, 자녀반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좋은 점에 대해서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친구 만나기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에 좋아서, 시간 보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지금은 할 수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성숙, 이웃/사회/국가 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여가활동 참여실태에 대한 분석

구 분		빈도	퍼센트
여가활동 동기	건강유지/증진	205	55.7
	대인관계 사교	64	17.4
	스트레스 해소	40	10.9
	자기만족	59	16.0
여가활동 유형	사회문화활동	101	27.4
	자기개발활동	108	29.3
	가족중심활동	51	13.9
	고독/무위해소활동	45	12.2
	소일활동	63	17.1
여가활동 만족	매우 만족	84	22.8
	대체로 만족	174	47.3
	그저 그렇다	84	22.8
	조금 불만족	24	6.5
	매우 불만족	2	.5
합계		368	100.0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정보/지식 불충분	2	7.7
	비용 많이 듦	8	30.8
	장소/시설 부족	3	11.5
	교통 불편	5	19.2
	몸 불편	8	30.8
합계		26	100.0
여가활동 참여못한 이유	건강문제	94	25.5
	경제적 문제	87	23.6
	교통불편	50	13.6
	시간문제	52	14.1
	자녀반대	11	3.0
	정보부족	40	10.9
	기타	34	9.2
합계		368	100.0
여가활동의 좋은 점 (다중응답)	친구 만나	253	25.5
	시간 보내서	194	19.6
	건강에 좋아서	215	21.7
	지금은 할수 있어서	105	10.6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112	11.3
	자신을 표현하고 성숙	85	8.6
	이웃, 사회, 국가 봉사	28	2.8
합계		992	100.0

제 3 절 사회문화적 변인 분석

1. 여가활동

거주지역별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활동에서는 ‘교양강좌 참석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6.361$, $p<0.001$), 서울 기타가 4.28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경기 도시가 3.15로 참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사회봉사 활동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0.612$, $p<0.001$), 강남3구가 1.85로 참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친목모임 참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9.953$, $p<0.001$), 경기 도시가 3.21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서울 기타가 2.36으로 참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문화 관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5.371$, $p<0.01$), 서울 기타가 1.81로 참여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운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0.600$, $p<0.001$), 서울 기타가 3.68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경기 도시, 경기 농촌, 강남3구는 낮게 나타났다. ‘산책, 등산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5.639$, $p<0.01$), 서울 기타가 3.35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강남3구가 2.64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내외 관광 및 여행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5.341$, $p<0.01$), 서울 기타가 2.02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개발활동에서는 ‘만들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074$, $p<0.05$), 강남3구가 1.51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문/잡지보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2.889$, $p<0.05$), 경기 도시가 3.00으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서울 기타가 2.46으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문/정원돌보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7.629$, $p<0.001$), 서울 기타가 3.72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경기 농촌과 강남3구가 2.83으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4.715$, $p<0.001$), 서울 기타가 1.54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중심활동에서는 ‘가족 외식/외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248$, $p<0.05$), 경기 도시가 3.03으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서울 기타가 2.58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종교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4.826$, $p<0.01$), 서울 기타가 3.64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경기 농촌이 2.83으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친구 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1.454$, $p<0.001$), 서울 기타가 4.39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경기 도시, 경기 농촌, 강남3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TV/라디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5.468$, $p<0.01$), 서울 기타가 4.30으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강남3구가 3.62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일활동에서는 ‘화투/장기/바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4.229$, $p<0.01$), 서울 기타와 강남3구의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 ‘낮잠/목욕/휴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6.045$, $p<0.01$), 서울 기타가 3.04로 참여가 가장 많았고, 강남3구가 2.32로 참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5] 거주지역별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한 분석

영역	세부활동	경기도시		경기농촌		강남3구		서울기타		F
		M	SD	M	SD	M	SD	M	SD	
사회 문화 활동	교양강좌 참석하기	3.15	1.26	3.51	1.25	3.65	1.20	4.28	1.07	16.361***
	사회봉사활동하기	2.66	1.35	2.77	1.14	1.85	1.15	2.07	1.34	10.612***
	친목모임 참석	3.21	1.17	3.18	1.10	2.82	1.45	2.36	1.32	9.953***
	문화 관람	2.34	1.07	2.38	1.10	2.29	1.16	1.81	1.17	5.371**
	운동	2.81	1.33	2.74	1.30	2.71	1.56	3.68	1.40	10.600***
	산책, 등산 등	3.24	1.26	2.83	1.23	2.64	1.44	3.35	1.35	5.639**
	국내외 관광 및 여행하기	2.60	1.12	2.55	1.12	2.58	1.25	2.02	1.30	5.341**
자기 개발 활동	글, 그림 그리기	1.87	1.21	2.10	1.26	1.69	1.20	1.66	1.10	2.432
	만들기	1.93	1.18	1.67	.91	1.51	.85	1.59	1.02	3.074*
	독서하기	2.68	1.35	2.35	1.22	2.26	1.46	2.70	1.56	2.165
	신문잡지보기	3.00	1.45	2.94	1.38	2.71	1.50	2.46	1.46	2.889*
	식물/정원돌보기	3.15	1.35	2.83	1.31	2.83	1.61	3.72	1.53	7.629***
	인터넷 사용하기	2.67	1.48	2.16	1.18	1.90	1.35	1.54	1.00	14.715***
가족 중심 활동	가족과의 대화	3.27	1.07	3.29	1.00	3.31	1.37	3.04	1.43	1.003
	자녀 집 방문	2.87	1.14	2.90	1.17	2.74	1.33	2.76	1.21	.392
	가족 외식/외출	3.03	1.00	2.93	1.21	2.94	1.25	2.58	1.03	3.248*
고독/ 무위 해소 활동	종교활동	3.17	1.42	2.83	1.37	3.39	1.63	3.64	1.52	4.826**
	친구 대화	3.49	1.23	3.52	1.28	3.69	1.47	4.39	1.03	11.454***
	TV/라디오	3.92	1.18	3.73	1.21	3.62	1.40	4.30	1.08	5.468**
소일 활동	화투, 장기, 바둑	2.25	1.19	2.52	1.37	1.89	1.30	1.96	1.31	4.229**
	낮잠/목욕/휴식	2.83	1.16	2.96	1.02	3.04	1.39	2.32	1.43	6.045**
	일 없이 시간 보내기	2.13	1.01	2.26	1.14	1.90	1.22	2.29	1.23	1.878

* p<.05, ** p<.01, *** p<.001

거주지역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F=3.791$, $p<0.05$), 강남 3구에서 2.1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경기 도시에서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독/무위해소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F=11.528$, $p<0.001$), 서울 기타지역에서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농촌에서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6] 거주지역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경기도 도시	2.85	.82	1.256	.289
	경기도 농촌	2.85	.71		
	서울 강남 3구	2.64	.84		
	서울 기타지역	2.79	.71		
자기개발활동	경기도 도시	2.54	.93	3.791*	.011
	경기도 농촌	2.34	.79		
	서울 강남 3구	2.15	.82		
	서울 기타지역	2.27	.71		
가족중심활동	경기도 도시	3.05	.80	1.809	.145
	경기도 농촌	3.04	.86		
	서울 강남 3구	2.99	.96		
	서울 기타지역	2.79	.98		
고독/무위 해소활동	경기도 도시	3.52	.94	11.528***	.000
	경기도 농촌	3.36	.95		
	서울 강남 3구	3.56	1.08		
	서울 기타지역	4.11	.80		
소일활동	경기도 도시	2.70	.78	.674	.568
	경기도 농촌	2.68	.77		
	서울 강남 3구	2.59	1.00		
	서울 기타지역	2.77	.86		

* $p<.05$, *** $p<.001$

성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t=2.308$, $p<0.05$), 남자가 2.95, 여자가 2.74로 여자의 사회문화 활동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t=4.519$, $p<0.001$), 남자가 2.66으로 여자보다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t=-3.076$, $p<0.01$), 여자가 3.75로 남자보다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7] 성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p
사회문화활동	남	2.95	.67	2.308*	.022
	여	2.74	.80		
자기개발활동	남	2.66	.81	4.519***	.000
	여	2.23	.81		
가족중심활동	남	3.02	.86	.751	.453
	여	2.94	.92		
고독/무위 해소활동	남	3.40	.85	-3.076**	.002
	여	3.75	1.00		
소일활동	남	2.75	.84	.716	.474
	여	2.67	.85		

* $p<0.05$, ** $p<0.01$, *** $p<0.001$

연령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3.424$, $p<0.01$), 60-65세에서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1세 이상에서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중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2.859$, $p<0.05$), 60-65세에서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81세 이상에서 가족중심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5.095$, $p<0.01$), 81세 이상에서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6-70세에서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8] 연령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60-65세	2.84	.80	.836	.503
	66-70세	2.84	.73		
	71-75세	2.75	.79		
	76-80세	2.88	.79		
	81세 이상	2.67	.74		
자기개발활동	60-65세	2.62	.94	3.424**	.009
	66-70세	2.43	.78		
	71-75세	2.18	.83		
	76-80세	2.43	.81		
	81세 이상	2.17	.78		
가족중심활동	60-65세	3.22	.89	2.859*	.023
	66-70세	2.85	.72		
	71-75세	3.12	.95		
	76-80세	2.91	.94		
	81세 이상	2.76	.95		
고독/무위 해소활동	60-65세	3.41	1.00	5.095**	.001
	66-70세	3.36	.92		
	71-75세	3.65	.92		
	76-80세	3.88	1.03		
	81세 이상	3.93	.91		
소일활동	60-65세	2.70	.81	.331	.857
	66-70세	2.77	.73		
	71-75세	2.65	.87		
	76-80세	2.70	.85		
	81세 이상	2.64	.98		

* p<.05, ** p<.01

결혼상태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4.305$, $p<0.05$), 이혼에서 2.62로 가장 낮았고, 기혼에서 사회문화 활동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12.816$, $p<0.001$), 기혼에서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혼에서 2.07로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중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6.429$, $p<0.01$), 기혼에서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혼에서 가족중

심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독/무위해소 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7.319$, $p<0.01$), 사별이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에서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9] 결혼상태별(배우자유무)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기혼	2.92	.81	4.305*	.014
	사별	2.70	.71		
	이혼	2.62	.80		
자기개발활동	기혼	2.58	.83	12.816***	.000
	사별	2.17	.80		
	이혼	2.07	.76		
가족중심활동	기혼	3.14	.82	6.429**	.002
	사별	2.85	.94		
	이혼	2.68	.98		
고독/무위 해소활동	기혼	3.54	.92	7.319**	.001
	사별	3.86	1.00		
	이혼	3.31	.98		
소일활동	기혼	2.79	.81	2.095	.125
	사별	2.62	.88		
	이혼	2.57	.84		

* $p<.05$, ** $p<.01$, *** $p<.001$

교육수준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7.179$, $p<0.001$), 중졸에서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졸에서 2.48로 사회문화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10.690$, $p<0.001$), 무학에서 1.9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고졸에서 2.66으로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중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3.487$, $p<0.01$), 초졸에서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무학에서 가족중심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0] 교육수준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무학	2.62	.59	7.179***	.000
	초졸	2.48	.63		
	중졸	2.99	.84		
	고졸	2.94	.79		
	대졸 이상	2.91	.82		
자기개발활동	무학	1.98	.59	10.690***	.000
	초졸	2.04	.65		
	중졸	2.43	.84		
	고졸	2.66	.91		
	대졸 이상	2.59	.90		
가족중심활동	무학	2.57	.94	3.487**	.008
	초졸	3.09	.89		
	중졸	2.99	.94		
	고졸	3.06	.80		
	대졸 이상	2.98	.86		
고독/무위 해소활동	무학	3.74	.91	.936	.443
	초졸	3.68	.97		
	중졸	3.65	1.05		
	고졸	3.72	.94		
	대졸 이상	3.42	.97		
소일활동	무학	2.66	.90	.385	.820
	초졸	2.69	.87		
	중졸	2.73	.85		
	고졸	2.75	.74		
	대졸 이상	2.58	.93		

** p<.01, *** p<.001

주택소유형태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2.249$, $p<0.05$), 월세에서 2.3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가에서 2.86으로 사회 문화 활동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중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4.427$, $p<0.01$), 자가와 전세에서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상임대에서 가족중심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6.676$, $p<0.001$), 무상임대에서 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월세에서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주택소유형태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자가	2.86	.81	2.249*	.049
	전세	2.81	.70		
	전월세	2.54	.61		
	월세	2.39	.75		
	무상임대	2.81	.64		
	기타	2.73	.64		
자기개발활동	자가	2.41	.84	1.576	.166
	전세	2.32	.86		
	전월세	2.10	.85		
	월세	2.11	.82		
	무상임대	2.18	.71		
	기타	2.64	.88		
가족중심활동	자가	3.08	.86	4.427**	.001
	전세	3.08	.80		
	전월세	2.58	.70		
	월세	2.70	1.00		
	무상임대	2.49	.99		
	기타	3.00	1.06		
고독/무위 해소활동	자가	3.57	.97	6.676***	.000
	전세	3.57	.94		
	전월세	2.87	.99		
	월세	3.91	.95		
	무상임대	4.30	.68		
	기타	3.58	1.00		
소일활동	자가	2.69	.85	2.022	.075
	전세	2.59	.81		
	전월세	2.35	.70		
	월세	2.62	.91		
	무상임대	3.03	.86		
	기타	2.45	.73		

* p<.05, ** p<.01, *** p<.001

경제생활수준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중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7.544$, $p<0.01$), 보통에서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편에서 가족중심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6.907$, $p<0.01$), 높은 편에서 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에서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2] 경제생활수준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높은 편	2.89	.79	.692	.501
	보통	2.80	.80		
	낮은 편	2.72	.66		
자기개발활동	높은 편	2.47	.88	1.221	.296
	보통	2.35	.85		
	낮은 편	2.24	.75		
가족중심활동	높은 편	3.01	1.08	7.544**	.001
	보통	3.07	.85		
	낮은 편	2.62	.88		
고독/무위 해소활동	높은 편	4.00	.96	6.907**	.001
	보통	3.52	.98		
	낮은 편	3.85	.90		
소일활동	높은 편	2.78	.97	.384	.682
	보통	2.67	.81		
	낮은 편	2.73	.88		

** p<.01

월 생활비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3.109$, $p<0.05$), 200-30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100만원에서 사회문화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7.995$, $p<0.001$), 200-300만원에서 2.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50-100만원에서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중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3.172$, $p<0.05$), 200-300만원에서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원 이하에서 가족중심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4.151$, $p<0.01$), 50만원 이하에서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100만원에서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3] 월 생활비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50만원 이하	2.73	.62	3.109*	.016
	50-100만원	2.66	.76		
	100-200만원	2.89	.89		
	200-300만원	3.13	.79		
	300만원 이상	2.86	.85		
자기개발활동	50만원 이하	2.23	.74	7.995***	.000
	50-100만원	2.11	.68		
	100-200만원	2.58	.97		
	200-300만원	2.83	.80		
	300만원 이상	2.38	1.04		
가족중심활동	50만원 이하	2.75	1.02	3.172*	.014
	50-100만원	2.95	.85		
	100-200만원	3.11	.80		
	200-300만원	3.24	.80		
	300만원 이상	3.13	.82		
고독/무위 해소활동	50만원 이하	3.88	.96	4.151**	.003
	50-100만원	3.37	.94		
	100-200만원	3.67	1.04		
	200-300만원	3.78	.78		
	300만원 이상	3.71	.93		
소일활동	50만원 이하	2.62	.85	1.260	.286
	50-100만원	2.73	.84		
	100-200만원	2.65	.85		
	200-300만원	2.97	.81		
	300만원 이상	2.64	.92		

* p<.05, ** p<.01, *** p<.001

개인용돈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2.863$, $p<0.05$), 100만원 이상에서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10만원 이하에서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중심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3.765$, $p<0.01$), 50-100만원에서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이하에서 가족중심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독/무위해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4.091$, $p<0.01$), 10만원 이하에서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30만원에서 고독/무위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4] 개인용돈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10만원 이하	2.66	.67	1.812	.110
	10-20만원	2.75	.72		
	20-30만원	2.92	.81		
	30-50만원	2.78	.86		
	50-100만원	3.05	.83		
	100만원 이상	2.72	.78		
자기개발활동	10만원 이하	2.15	.72	2.863*	.015
	10-20만원	2.25	.70		
	20-30만원	2.58	.94		
	30-50만원	2.41	.85		
	50-100만원	2.31	.96		
	100만원 이상	2.61	.94		
가족중심활동	10만원 이하	2.64	1.02	3.765**	.002
	10-20만원	3.06	.78		
	20-30만원	3.05	.79		
	30-50만원	3.03	.96		
	50-100만원	3.29	.81		
	100만원 이상	2.89	.93		
고독/무위 해소활동	10만원 이하	3.98	.91	4.091**	.001
	10-20만원	3.52	.86		
	20-30만원	3.38	1.02		
	30-50만원	3.59	1.02		
	50-100만원	3.83	.90		
	100만원 이상	3.82	1.23		
소일활동	10만원 이하	2.69	.95	.574	.720
	10-20만원	2.75	.72		
	20-30만원	2.73	.89		
	30-50만원	2.71	.82		
	50-100만원	2.48	.86		
	100만원 이상	2.61	.75		

* $p<.05$, ** $p<.01$

병원방문횟수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개발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4.717$, $p<0.01$), 전혀 안감에서 1.6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한달 1-2번에서 자기개발 활동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F=2.849$, $p<0.05$), 1주

일 1-2번에서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개월 2-3번에서 고독/무위
 해소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일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539$, $p<0.01$), 1주일 1-2번에서 2.8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전혀 안감에서 2.27로 소일 활동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4-15] 병원방문횟수별 노인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	p
사회문화활동	1주일 1-2번	2.60	.59	1.447	.218
	한달 1-2번	2.82	.81		
	6개월 2-3번	2.79	.75		
	1년 1-2번	2.97	.84		
	전혀 안감	2.87	.72		
자기개발활동	1주일 1-2번	2.15	.63	4.717**	.001
	한달 1-2번	2.45	.87		
	6개월 2-3번	2.22	.83		
	1년 1-2번	2.57	.81		
	전혀 안감	1.65	.75		
가족중심활동	1주일 1-2번	2.90	.97	1.228	.299
	한달 1-2번	3.03	.89		
	6개월 2-3번	2.80	.88		
	1년 1-2번	3.13	.74		
	전혀 안감	2.87	1.31		
고독/무위 해소활동	1주일 1-2번	3.83	.88	2.849*	.024
	한달 1-2번	3.74	.95		
	6개월 2-3번	3.36	1.09		
	1년 1-2번	3.53	.83		
	전혀 안감	3.81	1.03		
소일활동	1주일 1-2번	2.89	.89	3.539**	.008
	한달 1-2번	2.77	.82		
	6개월 2-3번	2.45	.85		
	1년 1-2번	2.62	.75		
	전혀 안감	2.27	1.00		

* $p<.05$, ** $p<.01$

2. 생활만족도

노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2.650$, $p<0.05$), 학력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주택소유형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731$, $p<0.01$), 자가와 월세에서 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상임대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생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13.408$, $p<0.001$), 높은 편에서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편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월 생활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5.045$, $p<0.01$), 300만원 이상에서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100만원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용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678$, $p<0.01$), 50-100만원에서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만원 이하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병원방문횟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F=3.550$, $p<0.01$), 1년 1-2번에서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주일 1-2번에서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의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표 4-16] 노인의 사회문화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량	p
거주지역	경기도 도시	3.41	.47	1.419	.237
	경기도 농촌	3.32	.56		
	서울 강남 3구	3.44	.64		
	서울 기타지역	3.30	.55		
성별	남	3.31	.53	-1.061	.289
	여	3.38	.55		
연령	60-65세	3.35	.39	1.106	.354
	66-70세	3.32	.48		
	71-75세	3.47	.63		
	76-80세	3.34	.61		
	81세 이상	3.32	.52		
(배우자유무)	기혼	3.36	.48	.218	.804
	사별	3.36	.63		
	기타	3.42	.48		
교육수준	무학	3.24	.50	2.650*	.033
	초졸	3.33	.68		
	중졸	3.33	.52		
	고졸	3.42	.47		
	대졸 이상	3.55	.48		
주택소유형태	자가	3.43	.54	3.731**	.003
	전세	3.34	.41		
	전월세	3.11	.33		
	월세	3.43	.75		
	무상임대	3.08	.54		
	기타	3.39	.37		
경제생활수준	높은 편	3.62	.64	13.408***	.000
	보통	3.39	.48		
	낮은 편	3.13	.61		
월 생활비	50만원 이하	3.28	.61	5.045**	.001
	50-100만원	3.26	.50		
	100-200만원	3.46	.49		
	200-300만원	3.55	.48		
	300만원 이상	3.73	.59		
개인용돈	10만원 이하	3.26	.63	3.678**	.003
	10-20만원	3.29	.46		
	20-30만원	3.32	.52		
	30-50만원	3.49	.43		
	50-100만원	3.63	.58		
병원 횟수	100만원 이상	3.56	.76	3.550**	.007
	1주일 1-2번	3.19	.67		
	한달 1-2번	3.34	.47		
	6개월 2-3번	3.43	.60		
	1년 1-2번	3.59	.51		
	전혀 안감	3.53	.54		
합계		3.37	.55		

** p<.01, *** p<.001

제 4 절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분석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인 생활만족도는 사회문화활동, 가족중심활동, 여가활동 전체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소일활동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간의 상관분석

구 분	사회문화 활동	자기개발 활동	가족중심 활동	고독/무위 해소활동	소일활동	여가활동	노인생활 만족도
사회문화활동							
자기개발활동	.609***						
가족중심활동	.311***	.364***					
고독/무위해소활동	.389***	.335***	.337***				
소일활동	.243***	.128*	.178**	.189***			
여가활동	.844***	.808***	.584***	.619***	.426***		
노인생활 만족도	.169**	.088	.246***	.102	-.130*	.157**	

* p<.05, ** p<.01, *** p<.001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 Square 값이 0.109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0.9%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775$, $p<0.001$). 노인의 여가활동유형의 영향력을 보면, 사회문화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2.488$, $p<0.05$), 가족중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4.022$, $p<0.001$), 소일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3.118$, $p<0.01$). Beta값을 보면, 가족중심활동이 0.244로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문화 활동, 소일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문화활동과 가족중심활동이 많아지고, 소일활동이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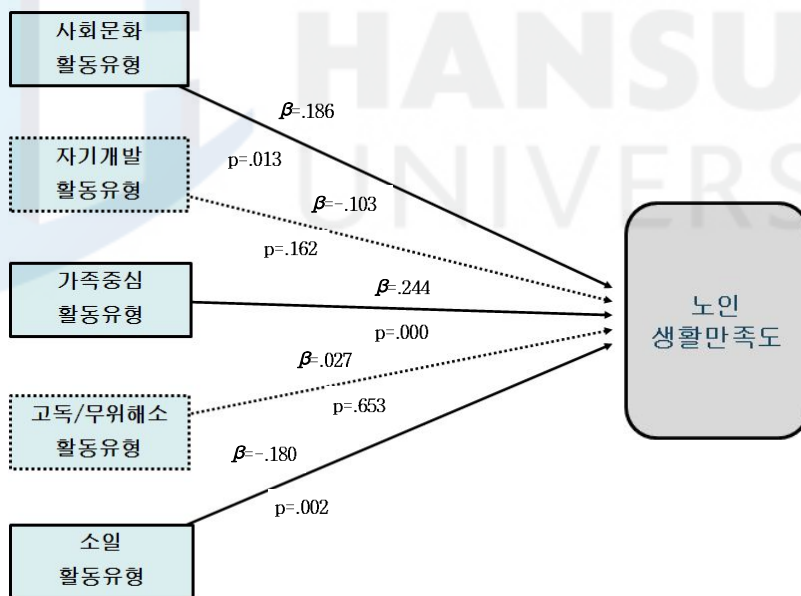
어질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다.

[표 4-18]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 분	B	Beta	R Square	F, p	t	p
(상수)	71.897		.109	6.775*** .000	18.791	.000
사회문화활동	.386	.186			2.488*	.013
자기개발활동	-.224	-.103			-1.404	.162
가족중심활동	.987	.244			4.022***	.000
고독/무위해소활동	.112	.027			.450	.653
소일활동	-.742	-.180			-3.118**	.002

* p<.05, ** p<.01, *** p<.001

<그림 4-1> 여가활동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노인복지 발전방향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특히 노인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주고 심리적 만족과 건강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하여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경기도와 접해있는 대단위 주거지역인 노원구, 도심지 주변의 주거지인 중구 등 그 밖의 서울 지역,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북부의 고양시와 의정부시, 경기남부의 평택시 등 도시지역과 경기도의 대표적 군(郡)지역인 가평군, 연천군 등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여 만족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여가활동을 제시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위 지역의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368명을 선정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면접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배경변인으로 노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거주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주택소유, 경제생활수준, 월 생활비, 개인용돈, 병원방문횟수 등 10개의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독립변인으로서는 여가활동의 유형에 ‘사회문화활동유형’, ‘자기개발활동유형’, ‘가족중심활동유형’, ‘고독/무위해소활동유형’, ‘소일활동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노인생활만족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유형별로 참여정도는 0.825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변수에서도 0.647-0.701로 신뢰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에서는 0.855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설정한 가설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문화적변수가 여가활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자기개발활동에서 서울 강남 3구에서 가장 낮고, 경기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 경기 농촌지역에서 가장 낮고, 서울 기타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여가활동에서는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개발활동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무위해소활동에는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자기개발활동 및 가족중심활동에서는 81세 이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60-65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66-70세에서 가장 낮고, 81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별로는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개발활동에서는 이혼에서 가장 낮았고, 기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중심활동은 이혼에서 활동정도가 가장 낮고 기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일활동에서는 이혼이 가장 낮고 사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석에서는 사회문화활동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에서 가장 낮고 중학교 졸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활동에서는 무학에서 가장 낮고 고등학교 졸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가족중심활동에는 무학에서 가장 낮고, 초등학교 졸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택소유형태별 분석은 사회문화활동에서는 월세에서 가장 낮고 자가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족중심활동은 무상임대에서 가장 낮고 자가와 전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전월세에서 가장 낮고 무상임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생활수준별로는 가족중심활동에서 낮은 편에서 가장 낮고 보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보통에서 가장 낮고 높은 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생활비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사회문화활동에서는 50-100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0-30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개발활동

에서는 50-100만원에서 가장 낮고, 200-30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가족중심활동에서는 50만원 이하에서 가장 낮고 200-30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50-100만원에서 가장 낮고, 5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용돈별로는 자기개발활동에서 10만원 이하에서 가장 낮고, 1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가족중심활동에서는 10만원 이하에서 가장 낮고, 50-10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20-30만원에서 가장 낮고 1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방문횟수별 분석에서는 자기개발활동에서 전혀 안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한달에 1-2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6개월에 2-3번에서 가장 낮고, 1주일에 1-2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소일활동에서는 전혀 안감에서 가장 낮고, 1주일 1-2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동기로는 건강유지 및 증진, 대인관계 사교, 자기만족, 스트레스 해소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가활동 유형에서는 자기개발활동, 사회문화활동, 소일활동, 가족중심활동, 고독/무위해소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0%의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서는 비용 많이 듦과 몸 불편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 불편, 장소·시설 부족, 정보·지식 불충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못한 이유에서는 건강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문제, 시간문제, 교통 불편, 정보부족, 기타, 자녀반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의 좋은 점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친구 만나기, 건강에 좋아서, 시간 보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지금은 할 수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고 성숙, 이웃/사회/국가 봉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문화적변수가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에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고, 주택소유형태에서는

무상임대에서 가장 낮고 자가와 월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생활수준에서는 낮은 편에서 가장 낮고 높은 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생활비에서는 50-100만원에서 가장 낮고 3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용돈에서 월 10만원 이하에서 가장 낮고 월 50-100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방문횟수가 1주일에 1-2번에서 가장 낮고 1년에 1-2번인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거주지역, 성별, 연령, 결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 부(富)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의 강남3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여가활동이 노인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여가활동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문화활동, 가족중심활동, 여가활동 전체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일활동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중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문화활동, 소일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및 결과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발활동에서는 경기 도시지역이 가장 높고, 고독/무위해소활동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연구분석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주택소유, 경제생활수준, 월 생활비 및 용돈, 병원방문횟수 등 각기 다른 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적, 신체적으로 다른 상황의 노인들이 욕구 충족과 만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관 등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주어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선택의 폭을 넓혀 각자 전문분야의 재능을 살려주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은 정신·육체적 건강상태, 집중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 인력이 일대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노인여가시설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가 활동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제공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개발로 노인 여가 생활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창조적인 자기 개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을 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다양한 학습 방법의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여가만족도는 높았지만 이웃, 사회, 국가 봉사에 가치를 두는 참여는 가장 낮았는데,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화를 위해 참여 동기의 유발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노인의 축소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및 자기개발의 욕구를 채워서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일상적인 생활이 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이나 사회활동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노년기가 소외의 시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일원으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높여줌으로써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정부나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당면한 무기력, 소외감, 역할상실, 무료함, 고독감 등이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

야 할 것이다.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이나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은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복지관의 참여 및 이용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노후에 생활만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건강유지 뿐만 아니라 경제적 욕구충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임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수입도 중·장년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저렴하고 노인의 특성에 맞는 여가활동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철저한 노후대책을 통해 건강증진과 경제력 확보가 필요하며 국가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건강한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 경제력이 있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남은 인생도 전반부 인생과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둑이나 장기 같은 정적인 종목만을 찾아서는 안되고 오히려 동적인 스포츠 등을 익히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우는 기간도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계획을 세워 종목을 정해놓고 중점적으로 배워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미리 자신의 여가활동을 개발하면 더 행복한 노후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에 갑자기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를 발달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중년기 때부터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적응시켜 예비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을 미리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족중심활동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노년기가 되면서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양한 여가활동 유형 중에서 직접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이므로 여가활동에도 가족중심활동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을 사용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산책이나 운동하기도 좋고, 손 자녀와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역을 서울과 경기의 일부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전국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가욕구와 여가실태에 관하여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비교연구 등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영향변수를 감안하여 좀 더 폭 넓은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고정자. (2001). 『노인복지학개론』, 형설출판사. p.248-249.
-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p.18-21.
- _____. 조주연. (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Vol. 20, 한국노년학회.
- 김금숙. (200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진. (2007).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미라. (200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p.95-116, 한국노인복지학회.
- 김선희. (2006).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6.
- 김성순. (1990).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 홍익제 p.384.
- 김수연. (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옥·박영주. (2000).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건강학회지』 2(1), p.59-71, 노인간호학회.
- 김태현. (1996). 『노년학』, 교문사 p.118.
- 김홍수. (1999). “노인 여가 활동 실태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 나항진. (2002). “노인학교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여가활동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장평 노인학교의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모창배. (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희영. (2000).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천. (2010). “고령화 사회 노인 여가활동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민호. (2008).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병숙. (1995). 『노년학』, 교문사. p.188.
- 송 은. (2006).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경기도 양주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미영. (2005). “노인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수민. (2003).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현숙. (2003). “노인의 특성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6
-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p.28.
- 이선미. (1991).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우 외. (2007). 『정책평가론』 법문사.
- _____. (2008). “후기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방법의 정책분석평가연구에의 적용가능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4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_____. (2008). 『정책분석론 : 이론과 기법』, 조명문화사.
- 이영기. (199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여가태도의 비교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6.
- 이우복. (1993).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

- 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주. (2011).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와 의 관계”,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3 .
- 이인수. (1999). 『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 p.103.
- 이재근 외. (2006).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 연구』, 13(3), p.243-272,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임창희. (2005).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춘식 외. (2007). 『노인복지학개론』, 경기 파주 : 학현사
- 장명숙. (2011). “노인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3
- 전숙자. (2009).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0
- 정광섭. (2001). “노인의 생활실태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도서노인과 도시노인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애. (2004).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영. (2007).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남·여 비교 및 빈곤여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하. (2005). “여성노인의 사회적활동과 사회적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2
- 진봉국. (1993). “여가활동 참여와 생활 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집』, Vol. 4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_____. 장인협. (2002).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277
- _____. (2006).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인근. (2007).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46.

- 탁기주. (2010).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 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통계청
- 하동현·황성혜. (2005). 『여가와 인간행동』, 서울 : 백산출판사.
- 한국노년학포럼. (2010). 『노년학 척도』, 서울 : 나눔의 집. p.341.
- 한국노년학회. (2002). 『노년학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 한은영. (2007).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생활만족도 : 여가활동을 매개변인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상욱. (2011). “노인의 여가 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6.
- 홍순혜. (1984). “활동이론에 따른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국외문헌

-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8th ed.)*. Belmont, CA: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Burnside. I. (1993). “Themes in reminiscence groups with older woma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pp. 177-189
- Cumming. E. & Herny W. E. (1961), *Growing old: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Basic Books. 1961), p. 15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3. 인터넷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노년학회: <http://www.tkgs.or.kr/>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http://www.kacsw.or.kr/>



【부 록】

설 문 지

- 여가활동 참여유형이 노인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본 조사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일상생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조사입니다.

어르신의 성의있는 설문응답은 저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하여 주신 이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지의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평소의 여가활동에 대하여 본인이 느끼는 점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 이 성 우

석사과정 : 이 영 선 드림

♣️ 어르신 여가 활동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어르신께서 여가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유지 및 증진 ② 대인관계 및 사교 ③ 스트레스 해소
④ 자기만족

2. 어르신은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십니까?

- ① 사회문화 활동 ② 자기개발 활동 ③ 가족중심 활동
④ 고독/무위해소 활동 ⑤ 소일 활동

3. 어르신이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해당사항 모두 표시해 주세요)

구분	세부활동	매우 자주 함	자주 함	가끔 함	거의 안함	전혀 안함
사회문화 활동유형	노인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교양강좌 참석하기					
	사회봉사활동하기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기타 모임 참여하기					
	영화, 연극, 음악회, 미술전시회 구경하기					
	운동(탁구,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댄스, 체조 등)					
	산책, 조깅, 등산, 약수터 다니기					
	국내외 관광 및 여행하기					
자기개발 활동유형	서예, 사군자, 그림 그리기, 목화 만들기(가구만들기, 그릇만들기 등)					
	독서하기					
	신문·잡지보기					
	가정식물 재배, 정원돌보기(난, 분재, 화초, 텃밭 가꾸기)					
	컴퓨터 인터넷 사용하기					

구분	세부 활동	매우 자주 함	자주 함	가끔 함	거의 안함	전혀 안함
가족중심 활동유형	가족과의 대화					
	자녀 집 방문(손자녀와 놀아주기)					
	가족 동반 외식이나 외출하기					
교우무위해소 활동유형	종교활동 참여하기					
	친구들과 대화하기(노인학교, 경로당, 공원, 다방 등에서)					
	TV시청, 라디오 청취하기					
소일 활동유형	화투, 장기, 바둑 두기					
	낮잠 및 목욕하며 휴식하기					
	일 없이 시간 보내기					

4. 어르신께서는 평소 행하시는 여가활동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③④⑤선택시 4-1번 작성)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대체로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은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4-1. 현재의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② 여가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③ 여가를 즐길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④ 여가활동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이 불편하다

⑤ 몸이 불편하여 제대로 여가를 즐기지 못한다

5. 어르신께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문제 ② 경제적인 문제 ③ 교통불편 ④ 시간문제

⑤ 자녀의 반대 ⑥ 정보부족 ⑦기타()

6. 어르신께서 지금 참여하시는 여가활동에 좋은 점이 있다면, 가장 중요

한 3가지만 골라 “√”해 주세요.

- ① 친구들을 만나 즐겁다
- ② 시간을 보내는데 좋다
- ③ 운동을 할 수 있어 건강에 좋다
- ④ 예전에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어 좋다
- 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좋다
- ⑥ 나 자신을 표현하고 성숙시켜 좋다
- ⑦ 이웃, 사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

♣️ 어르신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7. 어르신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조사입니다.

구 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4) 나는 내 동갑내기들 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 편이다.*					
5)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다.*					
6)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 하기도 싫다.*					
7) 요즈음 나는 살맛이 난다.					
8)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좋게 느껴진다.					
9) 요즈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구 분	매우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 지않 다	전혀 그렇 지않 다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11) 매일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12) 요즘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13) 요즘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14) 요즘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16) 앞으로 살아가는 데 희망이 있다.					
17)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18) 앞으로 내가 할 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20)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 역코딩 문항

♣️ 어르신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8. 어르신께서 살고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경기도 소재 도시 ② 경기도 소재 농촌
③ 서울특별시 강남 3구 ④ 서울특별시 기타지역

9.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10. 어르신의 연령은 만 몇 세입니까?

- ① 60~65세 ② 66~70세 ③ 71~75세 ④ 76~80세
⑤ 81세 이상

11. 현재 어르신의 결혼상태(배우자유무)는 어떠십니까?

- ① 기혼 ② 사별 ③ 이혼

12. 어르신의 교육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서당,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졸업이상

13.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혼자녀 ④ 기혼자녀
⑤ 미혼자녀+기혼자녀 ⑥ 기타()

14. 어르신께서는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다
⑥ 기타()

15. 어르신의 주택소유형태는 어떻습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전월세 ④ 월세 ⑤ 무상임대
⑥ 기타()

16. 어르신께서 주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빌라·연립 ④ 복지시설
⑤ 기타()

17.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높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낮은 편이다

18. 어르신께서는 생활비를 직접 부담하십니까?(부담하시면 18-1번 작성)

- ① 부담한다 ② 부담하지 않는다

18-1. 어르신께서는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 ① 직접 벌어서 쓴다 ② 퇴직금을 사용한다 ③ 저축한 돈을 사용한다
④ 기존 재산을 통한 소득을 사용한다 ⑤ 연금이나 정부의 생활보조금을
사용한다 ⑥ 자녀에게 의존 ⑦ 친척에게 의존

18-2. 어르신의 한달 총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 ① 50만원 이하 ② 50~100만원 ③ 100~200만원
④ 200~300만원 ⑤ 300만원 이상

19. 어르신은 한 달에 얼마정도의 개인용돈을 사용하십니까?

- ① 10만원 이하 ② 10~20만원 ③ 20~30만원
④ 30~50만원 ⑤ 50~100만원 ⑥ 100만원 이상

20. 현재 어르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자영업 ② 사무직 ③ 일용직 ④ 농축수산업 ⑤ 없음(가사포함)

21. 어르신이 느끼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쁜 편이다 ⑤ 매우 나쁘다

22. 어르신께서는 병원에 어느 정도로 가십니까?

- ① 1주일에 1~2번 ② 한달에 1~2번 ③ 6개월에 2~3번
④ 1년에 1~2번 ⑤ 전혀 가지 않는다

ABSTRACT

The effects of leisure patter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Seniors

-Focused on the aged peopl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Lee, Young-Sun

Major in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extension of average life span has lead to an increase in population growth of seniors. This is raising many questions such as how to provide economic support, how to make a full use of senior citizens, how to make a good use of seniors' free time, healthcare, and how to improve welfare services for seniors, etc.

To prepare for rapid growth of our aging society, this dissertation is aimed for invigorating seniors' leisure activit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eparation for good use of leisure activities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leisure activities by analyzing late-life leisure activities on the life-satisfaction among seniors. This dissertation can also benefit the youth by informing them in advance about techniques and information of leisure activities, which will be useful to learn before they become middle aged.

The elderly who live in today's complex society feel easily tired, alienated and solitary. However, leisure activities can help them relax

from both mental and physical exhaustion. They can also improve the state of their emotions, making their lives happier and more satisfied.

That is, the more senior citizens take advantage of leisure time, the more the value of their life will improve. And, this means the reinvention of a healthy society.

I would say that problems related to the senior citize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leisure activities.

Considering these situations, the need to study on how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leisure activities among seniors has been strongly raised.

This study analyzed the leisure activities of senior citizens who live in the representative areas in Korea such as GangNam district, Seocho-Gu, Songpa-gu, and other districts in Seoul - Nowon-gu, Jung-gu, and urban areas in Gyeonggi Province - Goyang city, Uijeongbu city, Pyeongtaek City, and rural areas in Gyeonggi Province - Gapyeong county, Yeoncheon county.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identify the leisure activities that can increase the seniors' satisfaction on late-life.

368 senior citizens who were at the Elder's College, the Senior Welfare Center, and the Community center in the districts area mentioned above were chosen and their leisure activities were analyzed. As research tools, surveys were used and person-to-person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background variables, seniors' social & cultural characteristics were comprised of 10 variables, those were residential district, gender, age, marriage, education level, home ownership, economic standard, monthly living expenses, allowance, and the number of visits to hospitals. As independent variables, leisure activities were comprised of "social and cultural activity pattern", "self-development activity

pattern", "family oriented activity pattern", "solitude/idleness activity pattern", and "pastime activity patter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as determin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analyzed it.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s, leisure activities were classified by categories.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was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in the category of social & cultural activity, family-oriented activity, all leisure activity, an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the category of killing one's time. Regression analysis result shows that leisure activity is meaningful. Family-oriented activity have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Social-cultural activity and killing one's time have ranked 2nd and 3rd in terms of having influ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As family-oriented activity gives people the biggest life satisfaction, more family oriented activities need to be developed.

It is impracticable to interpret the result of this study broadly or generalize it. Because surveyed areas were limited only to some areas in Seoul & Gyeonggi Province. And considering the many influential variables which surround seniors, a much more systematical study has to be done, such as the appetite for leisure by seniors and comparative study which considers individual seniors' situation.